

# 초등영어교육 연구 논문의 변천: 코퍼스 기반 분석

## A Corpus-based Analysis on Primary English Education Research for the Past 20 Years

최원경

버밍엄대학교 영어 및 응용언어학과

Wonkyung Choi(yolsimi77@gmail.com)

### 요약

우리나라의 공립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으로 이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본 연구는 과거 20년 동안에 초등 영어 관련 연구들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초등 영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을 검색하여(총 6,467편), 이들 연구의 ‘제목’을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인 Utagger와 WordSmith Tools를 통해 빈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20년 동안 ‘초등 영어’ 논문편수는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다소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주제로는 교수·학습 관련 영역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평가, 의사소통 기능 등과 같이 20년간 꾸준히 수행된 분야가 있는가 하면, 당시 교육정책의 기조에 따라 몰입, 원어민 등과 같이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구된 분야도 있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 교육, ICT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초등 영어 교육 분야는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연구의 스펙트럼도 다양해졌다는 성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초등 영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중심어 : | 초등 영어 | 20년 회고 | 코퍼스 분석 |

### Abstract

It has been about 20 years since the English subject was formally taught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Korea.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studies regarding ‘primary English’ implemented in Korea during the time period. I have investigated 6,467 theses or research papers in total that were published in Korea with the help of the corpus programs Utagger and WordSmith Tools. The results show that for the last 20 years the number of overall studies appears to have increased since the year 1997, although the recent trend seems to be in recession. The research scope ranges from ‘teaching-learning interaction’ to ‘curriculum’ and ‘assessment’, which have been steadily investigated for 20 years. Furthermore, researchers sometimes appear to have followed the English education policy by conducting particular investigations like ‘immersion program’ or ‘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in a certain time period. Recently, researchers started to have interest in the cutting-edge ICT. In conclusion, the academic field of ‘primary English’ in Korea has grown in quantity, and the spectrum of research areas has been expanded for the past 20 year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help set a new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 keyword : | Primary English | Past 20 Years | Corpus-based Analysis |

## I. 서론

한국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이다. 1995년에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이 실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1997년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1982년부터 초등학교 현장에서 특별활동교육의 일환으로 영어 수업이 도입되었고, 이후 1992년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재량시간에서 주당 1시간씩 초등 영어 수업이 실시되는 등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수업이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본격적인 정규 과목으로서의 영어 수업은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1].

초등영어교육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들도 초등영어과의 정규 교과목 도입과 궤를 같이 하였다. 김정렬[2]에 따르면, 1982년에서 1991년까지 학술지에 발표된 초등 영어교육 관련 논문의 수는 매년 5편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된 1995년에 30편으로 늘어났고, 이후 매년 논문 편수가 늘어나 1999년 한 해 동안 학술지에 발표된 초등영어교육 관련 논문 편수는 77편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영어교육 학계의 이러한 양적인 성장 추세는 1999년 이후부터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영어가 정규 교과목으로 도입된 지 20여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과거에 발표된 연구를 되짚어 보고 향후 초등영어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1997년 ~ 2016년)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검색하여 코퍼스 방법을 통해 양적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고, 이들 연구가 보여준 결과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연구가 대부분이고, 중등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분석했거나[3][4], 분석의 대상이 영어교육의 '연구방법'으로만 한정된 경우도 있었다[2-4]. 게다가, 초등영어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했다 하더라도, 분석 논문의 범위가 석사학위논문으로 한정되었거나 [1], 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이 아닌 현장 연구(action

research)를 대상으로 하는 등[5]의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거의 대부분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은, 양적인 분석을 표방하면서도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의 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어교육 방법론의 흐름을 살펴본 김충배[4]는 400편, 김진완[3]은 511편, 김정렬[2]은 318편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초등영어교육 관련 연구인 박기화[5]는 128편을 대상으로 했고, 김정자[1]가 이 중 가장 많은 74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했으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 II. 초등영어교육 관련 논문 수집 및 분석방법

### 1. 초등영어교육 관련 논문의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대학원을 통해 발표된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과 국내의 영어교육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가운데 '초등 영어'와 관련된 모든 논문을 포함한다. 이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의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RISS, KISS, DBPIA와 국회도서관 누리집 상세검색을 통해 '초등 영어'를 검색어(제목)로 사용하여 분석대상이 될 논문을 찾았다. 검색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초등영어 관련 논문 검색 결과

검색DB	국회도서관	RISS	KISS	DBPIA
검색어	초등 영어			
기간	1997년 ~ 2016년			
검색편수	6,467	6,134	559	546
학술지	2,100	1,919	559	546
학위논문	4,367	4,215	-	-

총 4군데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국회도서관과 RISS에서 검색한 논문 편수가 6,000편 이상으로 비슷한 반면, 학위논문을 제외한 학술지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KISS와 DBPIA에서는 각각 559편, 546편의 초등 영어 관련 논문이 검색되었다. 먼저, 상대적으로 적은

편수가 검색된 KISS와 DBPIA의 결과는 1차적으로 배제하고, 국회도서관과 RISS의 검색 결과는 중복되는 결과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어 두 결과 중 더 많은 편수가 검색된 국회도서관의 검색 결과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즉, 학술논문으로 검색된 2,100편와 석·박사 학위논문 4,367편을 합하여 총 6,467편의 ‘제목(논문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된 학위논문 또는 학술논문의 ‘제목(논문명)’만을 분석 데이터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코퍼스 방법은 대용량의 언어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 자료에 포함된 어휘들의 출현 빈도수(frequency)가 양적 분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데이터에서 ‘효과’라는 어휘가 몇 번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그 데이터에서 ‘효과’라는 어휘의 중요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적인 접근은 각 논문이 어떤 연구인지 질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개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즉, ‘제목’에는 연구의 주제, 방법론, 주요 영역 등의 핵심어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연구의 특징을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양적·개괄적으로 해석·평가되어야 하는 점을 주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각 논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20년간 ‘초등 영어’와 관련된 국내의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어떤 연구들이 수행되었는지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논문의 분류 및 분석 방법

연구 논문들을 통해 영어교육의 흐름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국내의 학자들의 분류 기준에 따라 연구들을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방법의 유형에 따라 연구 논문을 분류한 김충배[4]는 외국의 학자들의 분류 방법을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조사 연구, 문헌 연구, 분석 연구, 실험 연구가 그것이다. 다만, 김충배[4]는 4가지 유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렬[2]은 김충배

[4]가 제시한 분류에 ‘개발연구’라는 유형을 추가하였고, 이외에도 Chaudron[6], Van Lier[7], Grotjahn[8]이 제시한 대안적 분류 방법을 통해 연구 논문을 분석한 바 있다. 김경자[1]도 초등 영어 관련 학위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비슷한 방식의 분류 유형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언어 기능별, 언어 요소별 분류 기준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연구 논문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각각의 유형에서 벗어나거나, 중첩되거나,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기존 분류 체계로 연구 논문을 분석하는 것이 하향식 조사 방법(top-down)이라면,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핵심어 추출 분석 방법은 일련의 분류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 위주(data-informed)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향식 조사 방법(bottom-up)이라 할 수 있다. 즉, 핵심어를 기준으로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언어 기능 등 기존의 분류 체계의 어떠한 하위 범주로도 분류될 수 있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퍼스 분석 소프트웨어는 WordSmith Tools 5.0[9]과 UTagger[10]이다. WordSmith Tools는 전 세계적으로 코퍼스 방법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이고[9], UTagger는 울산대학교에서 개발한 한글 형태소 분석기로 국어정보학 연구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글은 교착어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 없이 바로 코퍼스 툴을 사용하게 되면 어휘 단위가 아닌 어절 단위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되므로, 논문명 정제작업을 위해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했다.

먼저, 연도별 발표 논문 편수, 출판 형태, 학위 구분 등에 따른 기술통계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초등영어 관련 논문의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UTagger를 통해 정제된 텍스트 파일을 WordSmith Tools의 Wordlist 기능을 통해 분석하여 어휘별 출현 빈도수를 산출했다. 빈도 리스트에서 내용어를 중심으로 하여 초고빈도, 고빈도, 중빈도, 저빈도 핵심어를 선정한 후, 주로 중빈도 이상의 핵심어들을 위주로 지난

20년간 연구의 주요 요소들과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연구들을 양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시간적 순서에 따라 5년 단위로 데이터를 묶어 비슷한 방식으로 5년의 기간별로 핵심어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핵심어에 대해 빈도수 분석하여 관심 연구들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 III. 결과 분석 및 논의

#### 1. 지난 20년간의 초등 영어 연구 양적 추이

[표 2]는 국회도서관에서 검색어 ‘초등 영어’를 사용하여 검색한 총 6,467편의 연구 논문을 일련의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표 2. 초등영어 관련 논문 검색 결과

구분		논문편수	비고
학위논문	석사	4,261 (65.9%)	학위논문 합: 4,367 (67.5%)
	박사	106 (1.6%)	
학술논문		2,100 (32.5%)	
계		6,467	

지난 20년간 발표된 학위논문은 4,367편으로 전체의 67.5%에 달했고, 이 중 석사학위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65.9%였다. 박사학위논문은 106편으로 전체의 1.6%만을 차지했는데, 즉, 20년간 1년에 단 5편 정도의 박사학위논문이 나왔다는 것은 기대보다 매우 낮은 수치일 수 있다.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의 질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논문이 연구의 질과 깊이에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때, 초등 영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미진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석사학위논문의 상당수는 특수목적 대학교인 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보이는데, 교육대학교 대학원들이 초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들 논문의 대부분은 현

직 교사이거나 미래에 초등 교사가 될 예비 교사들에 의해 출판된 논문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초등 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진 경험들이 연구로 이어졌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1]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논문편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에 초등영어가 도입된 1997년에 100편 미만(95편)에 머물렀던 초등영어 관련 논문편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도에 300편(317편)을 돌파한 이후 약간의 증감을 거듭했으나, 매년 300편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7년 이후, 초등 영어 연구에 대한 계속된 관심은 2004년에 당시로서는 정점(387편)에 이르고, 2004년 이후 2009년(311편)까지는 소폭 하락한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는 논문 편수가 재상승하여 2013년에 최고조(406편)에 이르는데, 이러한 양상은 아마도 2008년에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진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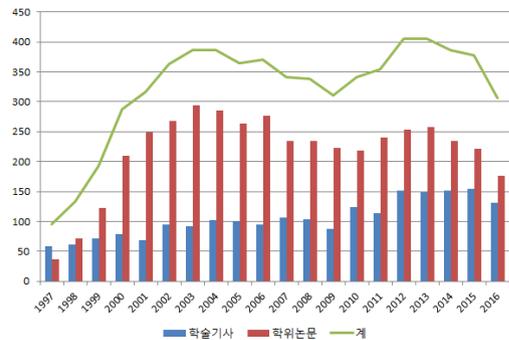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발행 논문 편수

김수정[11]은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관련 정책이 영어에 대한 공적 인식과 지위가 침체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했는데, 그 정책들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면밀히 분석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초등영어 교육 분야에 양적인 성장을 가져온 점은 발행 논문 편수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문편수는 2013년 이후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 역시 당시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

을 위한 정책 등과 함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논문편수로 한국의 초등영어교육이 침체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단초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 2. 핵심어 추출을 통한 초등영어 관련 연구 분석

수집된 6,467편의 논문명의 어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총 토큰(token)수는 88,341단어, 이에 대한 타입(type)수는 2,673단어로 집계되었다. 타입수는 중복된 모든 단어를 하나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토큰수는 동일한 단어 반복을 별개로 계산하는 방식이다[12]. 먼저, 어휘목록에 나타난 어휘들을 초고빈도(A), 고빈도(B), 중빈도(C), 저빈도(D)의 4단계로 분류한 다음, 검색어로 사용된 ‘초등’, ‘영어’, 그리고 ‘연구’, ‘분석’ 등과 같이 지나치게 일반적인 어휘와 함께 조사나 어미 등 내용어가 아닌 형태소 및 어휘들을 제외하였다. 또한, 빈도수가 10회 이하인 어휘는 전체 타입수의 81.7%를 차지하는 2,185개였는데, 이 어휘들은 20년간의 연구 흐름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핵심어를 추출한 결과가 [표 3]이다.

빈도 구분을 4단계로 나눈 기준은 A에서 D까지 각각 빈도수 500회, 100회, 50회, 10회로 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핵심어를 보다 쉽게 볼 수 있었다. A, B구간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되는 주제로, C구간은 고빈도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는 주제로, 반면 D구간은 간헐적으로 연구된다고 판단된다.

A구간에 해당하는 초고빈도 핵심어는, 경우에 따라 어떤 범주에도 속할 수 있는 다면성을 갖고 있기에, 역설적으로 본 연구가 지향하는 연구의 흐름을 보여주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또한, 각 범주는 내용에 따라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다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범주에 포함시켰다(예: 학생 → 학습자, 스토리텔링 → 동화, 매체 → 멀티미디어).

표 3. 빈도 구간별 핵심어

구분	기준 빈도수 (상대적 위치)	핵심어
초고빈도 (A)	500회 초과 (상위 7.7%)	학습, 수업, 영향, 지도, 효과, 학년, 학습자(학생), 방안, 교사, 활동, 읽기, 쓰기
고빈도 (B)	101~500회 (상위 23.8%)	교과서, 어휘, 듣기, 개발, 동화, 말하기, 정의, 인식, 의사소통, 문화, (교육)과정, 평가, 교수, 모형, 수준, 프로그램, 게임, 통합, 전략, 성취, 태도, 역할(놀이), 자료, 흥미, 발음, 협력(또는 협동), 문자, 동기, 원어민, 문법, 습득, 사례, 노래
중빈도 (C)	51~100회 (상위 37.0%)	상호(작용), 오류, 인터넷, 어휘력, 멀티미디어(또는 매체), 몰입, 부진, 개정, 교수법, 과제, 수행, CD-ROM, 챗트, 지도 방안, 웹, 파닉스, 연수, 조기, 과업, 문학, 중학교, 드라마, 그림, 소집단, 발달, 방과, 피드백, 학부모
저빈도 (D)	11~50회 (100%)	지능, 심화, 만화, 연극, 다중, 사교육,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다독, 2009, 전담, 보조, 총체적, 과학, 읽기, 저학년, 코퍼스, 동시, 영화, 유창성, 고학년, 디지털, 보충, 수학, ICT, 지도서, 창의성, 체험, 스마트, 음소, 캠프, 문해, 사이버, 신문, 컴퓨터, EBS, 강세, 포드폴리오, 비디오, 언어, 음운, 딕토글로스, 사진, 온라인, 화상, 2008, 영재, 리듬, 각운, 담화, 독서, 시제, 역량, 재량, TPR, 자신감, 자율성, 컨설팅, 마인드맵, 뮤지컬, 불안감

빈도수에 따라 핵심어를 나열한 [표 3]을 통해서 연구들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표 3]을 구조화하여 핵심어들을 의미의 단위에 따라 정리·분류한 것이 [표 4]이다. [표 4]를 살펴보면, 먼저, ‘교수·학습 방법 관련’ 범주는 가장 많은 핵심어가 포함되었는데, 지난 20년간 발표된 초등영어 관련 논문들의 상당수가 학습, 수업, 지도, 활동이 어떤 효과를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활동들은 다양한 종류의 교수 형태로 나타났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B구간에서 제시된 동화(스토리텔링), 게임, 역할놀이, 협동학습과 노래 등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B구간보다 적지만 C구간에 속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몰입, 웹 등도 자주 연구된 형태였고, D구간에 속한 만화, 연극, 애니메이션, ICT, 스마트 등은 빈도수는 적지만 최근 들어 많이 시도되는 수업 형태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동화(스토리텔링)나 게임, 역할놀이 등의 학습 활동이 시도되고 연구되었다는 것은 중등영어와 차별되는, 초등 수준에서 적용되는 교수·학습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타 교과와 영어과와의 통합 교과를 통한 프로그램(B구간)이나 몰입 관련 연구(C구간)은 주로 과학과 수학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표 4. 범주에 따른 단계별 핵심어

범주	구간	핵심어
교수·학습 방법 관련	A	학습, 수업, 지도, 활동
	B	동화(스토리텔링), 개발, 평가, 교수, 모형, 수준, 프로그램, 게임, 통합, 전략, 역할놀이, 협동(협력), 노래
	C	상호(작용), 인터넷, 멀티미디어(매체), 몰입, 교수법(지도방안), 과제, 수행(평가), CD-ROM, 챗트, 웹, 과업, 드라마, 그림, 소집단, 피드백
	D	만화, 연극,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다독, 총체적, 과학, 일기, 동시, 영화, 수학, ICT, 스마트, 사이버, 신문, 컴퓨터, 포트폴리오, 비디오, 사전, 온라인, 화상, 독서, TPR, 마인드맵, 뮤지컬
의사소통기능	A	읽기, 쓰기
	B	듣기, 말하기, 의사소통
연구 대상 및 내용 요소	A	학습자(학생), 학년, 교사
	B	(학생 관련) - 정의, 성취, 태도, 흥미, 동기, 습득 (교사 관련) - 원어민 (자료 및 교육 환경 관련) - 교과서, 문화, 자료, (교육)과정
	C	(학생 관련) - 부진, 조기, 중학교, 발달 (교사 관련) - 연수 (자료 및 교육 환경 관련) - 개정(교육과정), 문학, 방과(후), 학부모
	D	(학생 관련) - 지능, 다중, 저학년, 고학년, 영재, 자신감, 자율성, 불안감 (교사 관련) - 전담(교사), 보조(교사) (자료 및 교육 환경 관련) - 심화, 사교육, 2009(개정교육과정), 보충, 지도서, 체험, 캠프, EBS, 덕토글로스, 2008(개정교육과정), 컨설팅, 재량
연구방법론	B	인식, 사례
	D	오류, 코퍼스
언어 및 문법 요소	B	어휘, 발음, 문자, 문법
	C	어휘력, 파닉스
	D	유창성, 창의성, 음소, 문해, 강세, 언어, 음운, 리듬, 각운, 담화, 시제, 억양

두 번째 범주는 영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능 관련 범주이다. 언어의 4기능은 모두 B구간 이상에 속해 고빈도 어휘로 분류되었는데, 이 중 읽기의 빈도수가 가장 많은 680회, 쓰기 593회, 듣기 424회, 말하기 350회로 나타났다. 초등영어가 문자 언어보다 음성 언어 노출과 그 사용에 더 중점을 둔다

는 점에서 읽기와 쓰기 기능 관련 연구가 많다는 것은 다소 의외로 여겨진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문자 언어 연구 데이터를 얻는 것이 음성 언어 데이터를 얻는 것보다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음성 언어 중에서도 듣기 관련 연구가 말하기 관련 연구보다 많은 점도 역시 데이터 획득의 용이성과 관련이 깊다고 추정된다.

세 번째 범주는 연구 대상 및 내용 요소이다. 이 범주는 ‘학생’, ‘교사’, 그리고 ‘자료 및 교육 환경 관련’의 3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A구간 핵심어인 ‘학습자(학생, 초등학생)’의 빈도수가 1,818회로 가장 많았는데, B, C, D구간에 나타난 정의(적 영역), 성취, 태도, 흥미, 동기 등 핵심어가 연구 대상으로서 넓은 의미의 ‘학습자’에 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연구 대상은 ‘학습자’와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 영어의 연구 대상으로 학생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A구간의 핵심어 중 ‘학년’은 모두 627회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몇 학년’과 같은 형태로 쓰였다. 분석 결과, 6학년이 가장 많은 235회, 4학년이 148회 쓰였고, 3학년과 5학년이 상대적으로 적은 93회, 65회 사용되었다.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월등히 많은 것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내용이 복잡해지고, 학생들의 발화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5학년보다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빈번한 것은, 교육과정에서 단어 단위의 문자 언어가 도입되는 시기가 4학년인 것과, 게임, 역할놀이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적용하기에 5학년보다 4학년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1회 있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있기는 하나, 주로 중학교 1학년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핵심어 ‘교사’가 빈도수에서 그 뒤를 이었는데, 일반교사 뿐만 아니라, 원어민(119회), 전담교사(35회), 보조교사(38회) 등과 관련된 연구들도 어느 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 ‘연수’와 관련된 연구도 상당수(67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적었으나, 이 중에는 교과서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도 상당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문화(309회), 문학(61회), 방과후(52회), 학부모(50회) 등 교육 환경과 관련된 핵심어들도 추출되었다.

네 번째 범주는 연구방법론인데,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명에 방법론을 반드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을 염두해 볼 때, 이 범주의 핵심어 빈도수는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즉, 모든 연구 논문의 연구방법론을 분류했다기보다는, 논문명에서 명시한 연구방법론만을 핵심어로 추출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례 연구는 빈번하게 수행되었으나(106회), 코퍼스 관련 연구는 미미하게나마 시도되고 있음(32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범주는 언어 및 문법 요소 관련 범주이다. 교수·학습 방법이나 연구 대상 및 내용 요소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다. 이 범주는 초등영어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이 아닌 언어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데, 초등영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시도는 연구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폭넓은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영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어휘 관련(‘어휘력’ 포함 518회), 발음(146회), 문자(121회), 문법(119회) 등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유창성(30회), 창의성(27회)을 포함하여 언어(27회), 음소(26회), 강세(20회), 억양(15회) 등의 언어 요소가 적게나마 연구된 것으로 보인다.

### 3. 기간별 연구 주제의 변천

앞 절에서는 핵심어 추출을 통해 지난 20년간 발표된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 보았다. 본 절에서는 20년간의 연구 논문을 5년 단위로 나누고(총 4기), 앞서 행한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코퍼스 분석하여 핵심어를 추출하였다.

[표 5]에는 5년 단위로 나뉜 각 기수별로 발표된 논문 편수와 그에 따른 토큰수, 타입수가 나타나 있다. 논문 편수는 기수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고, 이에 따른 토큰수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논문의 타입수 역시 증가했는데(1기: 909 → 4기: 1,605),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가 다양화되

고 연구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5. 기간별 논문 분석 결과

기수	기간	논문편수	토큰수 (token)	타입수 (type)
1기	1997년~2001년	1,026	12,620	909
2기	2002년~2006년	1,871	23,865	1,242
3기	2007년~2011년	1,688	23,924	1,375
4기	2012년~2016년	1,882	27,932	1,605

기간별 논문 분석은 각 기수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체 어휘목록의 타입수를 나열한 어휘목록에서 랭킹의 상대적 위치(백분율)로 [표 3]의 핵심어에서 선별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즉, 앞 절의 [표 3]에 나타난 빈도 구간별 핵심어 중 C구간 이상(초고빈도, 고빈도, 중빈도)에 해당하는 핵심어들을 대상으로, 기별 타입수 랭킹이 어휘 목록(빈도수 10회 이하 제외)의 상위 37.0%([표 3]에서 C구간 기준)에 속하는 핵심어를 추출하였다.

표 6. 기간별 핵심어 추출

기수	핵심어
공통	(교육)과정, 교사, 학습, 학습자(학생), 교과서, 수업,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의사소통, 평가, 동화(스토리텔링)
1기	-
2기	게임, 놀이, 문화, 수준(별), 어휘, 정의(적 영역), 흥미, 6학년
3기	교과서, 몰입, 문화, 성취, 수준(별), 어휘, 원어민, 정의(적 영역), 태도, 통합, 협력(협동), 6학년
4기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동기, 문화, 부진, 성취, 어휘, 정의, 태도, 통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먼저, 모든 기수에서 높은 빈도수를 갖고 공통적으로 추출된 핵심어로 교육과정, 교사, 학습자(학생), 교과서, 의사소통 4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 동화(스토리텔링)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앞 절에서 20년간의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와 같이, 해당 핵심어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교육과정’과 ‘평가’는 20년 내내 꾸준히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교육과정’과 ‘평가’가 초등 교육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다만, ‘평가’는 2기에서 특히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91회), 이것은 이 기간 중에 ‘수행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의사소통 4기능 역시 20년 동안 꾸준히 다루어진 연구 주제였다(그림 2참고). ‘듣기’와 ‘말하기’ 관련 연구는 2기에 가장 많았다(각각 169회, 119회), 3, 4기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4기 듣기 70회, 말하기 81회). 반면, ‘읽기’, ‘쓰기’ 관련 연구는 1기에서부터 차차 증가하다니, 4기에서는 각각 259회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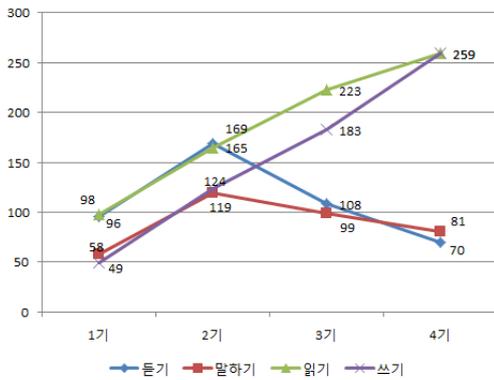


그림 2. 기수별 의사소통 4기능 빈도수 추이

4기에서 문자언어(읽기, 쓰기) 관련 연구가 음성언어(듣기, 말하기) 연구의 3배 정도 웃도는 것은, 첫째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자언어 데이터를 얻기가 더욱 용이하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교육과정의 내용 변화와 관계가 깊다고 판단된다. 즉, 초등영어 교육과정 초기(1기)에 음성언어를 강조하고 의도적으로 문자언어 도입을 늦추었다가, 이후에 문자언어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교과서에서 사용 가능한 어휘수도 늘리는 등 교육과정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6]에 나타난 기수별 핵심어(‘공통’ 부분 제외)는 해당 기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가진 어휘들로, 각 기수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수행된 연구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5년 단위 기간에 따라 어떤 연구들

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특정 기수에서 자주 수행된 연구가 다른 기수에는 얼마나 자주 수행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7]은 [표 6]의 핵심어 중 ‘공통’ 부분을 제외하고 기별로 추출된 핵심어가 1~4기에서는 어떠한 빈도수의 추이를 보이는지 나타낸 결과표이다.

표 7. 기별 핵심어의 빈도수 변화 추이

핵심어	1기	2기	3기	4기
개정(교육과정)	-	-	22	61
게임	48	67	39	46
놀이	37	66	35	22
몰입	4	8	60	14
통합	23	54	69	58
문화	27	74	60	148
수준(별)	33	83	58	49
흥미	21	59	39	32
어휘	44	109	141	224
원어민	1	21	70	27
성취	12	47	63	62
정의(적 영역)	3	56	133	119
태도	11	55	57	59
협력(협동)	5	40	56	45
3학년	29	42	33	63
4학년	14	40	34	74
5학년	10	33	25	56
6학년	10	67	57	105

먼저, 기수별로 추출된 핵심어의 개수(음영 처리된 셀의 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기: 0개, 2기: 8개, 3기: 11개, 4기: 11개). 즉, 1기에는 초등 영어의 보다 일반적인 부분(‘공통’ 부분)에 연구가 집중되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분야로 연구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에 나타난 핵심어에 대해 각각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1, 2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3, 4기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 이후에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3기에 수시 개정 체계가 확립되면서 초등

영어과 교육과정의 자주 개정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게임’과 ‘놀이’에 대한 연구는 2기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초등 영어 교육에서 게임과 놀이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3, 4기를 거치며 다소 시들해진 것으로 보인다.

‘몰입’, ‘통합’ 관련 연구가 3기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계되어 보인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영어공교육 정책의 하나로 ‘영어 몰입(immersion) 교육’을 내놓으면서 영어열풍 현상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11]. ‘통합’은 몰입프로그램과 관련지어 타 교과목과 영어 과목을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문화’ 관련 연구의 증가는 교육과정에서 ‘문화’ 요소를 강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재료’의 범주에 ‘문화’ 요소를 추가시켰고,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재’ 항목에 포함하고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 영어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는 논문편수의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13].

핵심어 ‘수준(별)’, ‘흥미’ 관련 연구가 2기에 집중된 것도 당시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기는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별 수업을 강조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던 시기로, 영어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휘’와 관련된 연구가 계속해서 급속히 증가한 것은 주목해 볼 만 하다. 이는 영어교육에서 ‘어휘’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일차적인 이유일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어휘 관련 연구가 교육과정의 어휘 목록, 관련 규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어휘 통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구 주제라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김영숙[14], 이영희[15], 장경숙[16], 주형미[17]).

‘읽어민’ 관련 연구가 3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것은 초등영어교육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진다. 3기에는 초등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졌는데, 이 시기에 ‘읽어민’ 보조교사가 전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

에 배치되어, 한국인 교사들과의 협력 수업(co-teaching)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이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성취’와 함께 ‘정의(적 영역)’와 ‘태도’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이 학생들의 인지적인 영역과 그 성취와 함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동(협력)’도 교사들이 교실 상황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시도한 것의 일환으로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으로서 각 학년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대체로 증가했는데, 6학년 관련 연구가 가장 빈번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습의 결과물로서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발표된 ‘초등 영어’ 관련 논문을 코퍼스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이 기간 동안 학계의 연구 흐름을 양적으로 분석하여 개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기존에 ‘영어 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들 연구는 제한된 수의 논문을 분석했거나, 석사학위논문 또는 현장 연구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한계점이 있었다. 반면,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국내에 출판된 거의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는 논문의 제목(논문명)만을 대상으로 하여 양적 분석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연구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보여준 반면, 연구 논문의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겠다. 본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초등 영어’ 관련 출판 논문편수는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비록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다소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초등영어 관련 연구는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 주제도 다양해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최근 연구가 다소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장 두드러지는 연구 주제는 교수·학습 관련 영역으로, 특히 교육 방법에 관한 다양한 시도가 엿보였다. 동화(스토리텔링), 게임, 놀이, 노래 등 초등영어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교수법 관련 연구가 여전히 널리 행해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 교육, ICT, 멀티미디어 관련 교수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영어교육의 주된 목표인 의사소통기능 향상을 위한 언어의 4기능과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초등 영어 교육에서 음성 언어를 강조하여 1기에는 음성 언어(듣기, 말하기) 관련 연구가 빈번했던 것에 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자 언어 관련 기능(읽기, 쓰기)과 관련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넷째, 초등 영어와 관련된 연구에서 다양한 언어학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은, 초등영어 연구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나아가 다양한 간학문적 연구를 기대케 한다.

마지막으로, 기간별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학생, 교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 관련 분야 등 꾸준한 연구 주제가 된 부분이 있었던 반면, 시대와 정부의 초등영어 교육 정책 기조,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연구 주제도 흐름을 같이 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원어민 보조교사, 몰입 및 통합 프로그램, 수준별 수업, 문화 요소 등은 교육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초등 영어 교육 분야는 양적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연구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다만, 양적인 성장이 곧바로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지금까지 시도된 다양한 연구들이 실제로 얼마나 교육 현장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하고 얼마나 과파력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변천이나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교육 효과 등을 평가하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와 함께 교육의 방향을 선도하는 연구들과 다양한 실험들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해본다면, 20세라는 나이는 신체적 성장이 거의 완성되고 이제 그에 어울리는 인격적 성숙이 필요한 나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 영어 교육 20년 연구의 회고를 통해, 초등 영어 분야가 질적으로 더욱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1] 김정자, *초등영어교육 연구의 흐름: 전국 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 김정렬, “초등영어교육 연구방법의 흐름,” *초등영어교육*, 제7권, 제2호, pp.37-62, 2001.
- [3] 김진완, “한국의 영어교육 연구방법론의 변천과 전망,” *영어교육*, 제55권, 제4호, pp.345-366, 2000.
- [4] 김충배, “한국의 영어교육 연구 방법의 발달,” *영어교육*, 제50권, 제2호, pp.47-67, 1995.
- [5] 박기화, “초등 영어 교육 현장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경기도를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제10권, 제2호, pp.97-125, 2004.
- [6] C. Chaudron, *Second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7] L. Van Lier, *The classroom and the language learner*, Longman, 1988.
- [8] R Grotjahn, “On the methodological basis of introspective methods,” In C. Faerch and G. Kasper (eds.), *Introspection in second language research*,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pp.54-81, 1987.
- [9] M. Scott, *WordSmith Tools*, Lexical Analysis Software, 2012.
- [10] 신준철, 옥철영, “한국어 품사 및 동형의어 태깅을 위한 단계별 전이모델,”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39권, 제11호, pp.889-901, 2012.
- [11] 김수정, “영어교육열풍에 대한 텔레비전 담론: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 *한국방송학보*, 제22

- 권, 제5호, pp.7-52, 2008.
- [12] S. Hunston, *Corpora in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13] 권은영, 김혜련,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내용 분석,” 한국초등교육, 제27권, 제2회, pp.207-229, 2016.
- [14] 김영숙, “초등 영어 기본 어휘에 관한 제안,” 초등영어교육, 제3권, pp.5-17, 1997.
- [15] 이영희, *초등영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16] 장경숙,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 영어교육, 제62권, 제2호, pp.331-353, 2007.
- [17] 주형미, “국가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 개선 연구,” 영어학연구, 제17권, 제1호, pp.57-81, 2011.

#### 저 자 소 개

최 원 경(Wonkyung Choi)

정회원



- 2003년 8월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학사)
  - 2009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재교육과(교육학 석사)
  - 2014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박사 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University of Birmingham  
PhD candidate
- <관심분야> : 학습자 코퍼스, 영어 교육, 오류 분석, 제2 외국어 습득